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30분 전 공동체 기도(묵주 기도, 성체 조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신부님 일정

- 1) 1월 20일(월) - 2월 7일(금): 한국 방문 및 휴가
- 2) 1월 26일(일) 주일 미사 집전 : 이영준 스테파노 신부(이튼타운 한인 성당 주임)
- 3) 2월 2일(일) 주일 미사 집전 : 김기현 모이세 신부(프린스턴 한인 성당 주임)

● 2019 교무금 완납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수희, 김광대, 김성문, 김성욱, 김성철, 김영두, 김영복, 김연자, 김윤선, 김재숙, 김희동, 박민수, 박영희, 송현배, 신용철, 안우풍, 오세환, 윤모니카, 이경실, 이상민, 이순덕, 임익철, 장석영, 장한민, 최만섭, 최미라, 최영숙, 황선동>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매월 셋째 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성가책 판매

소 : \$25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김윤선 호노리나>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제노베파 구역 : 1월 26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성문 루카, 김정숙 이사벨라 가정 주관)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사목회**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파**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제1독서	이사야서 49, 3-6
화답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2독서	코린토 1서 1, 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복음	† 요한 1, 29-34
봉헌성가	
성체성가	
퇴장성가	

오늘의 묵상

증언을 한다는 것은, 증언할 대상에 대한 탐구나 분석이 아닙니다. 증언은 제 삶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복음의 “어린양”은 그런 외침을 드러내는 대표적 표상입니다. 유다 사회가 간직한 “어린양”의 의미는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대속이었습니다(탈출 12장; 이사 53장 참조).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유다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가 버거울 만큼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절망은 하느님을 통하여 희망을 꿈꾸는 것으로 바뀌고, “어린양”은 미래에 펼쳐질 희망찬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 오시는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규정합니다.

당시 사회는 세상을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직접 주관하신다는 희망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은 세상을 단절시키고 갈라놓고 찢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으로 오셨고(요한 13,1 이하), 당신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친교의 자리입니다. 증언을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세상에 오신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유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은 “어린양”의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화합과 신뢰, 사랑임을 일깨웁니다. 화합과 신뢰, 사랑은 요한 복음이 쓰인 그 시대를 살아간 신앙 공동체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2주일 1월 19일	연중 제3주일 1월 26일	연중 제4주일 2월 2일
제1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박영희 마틸다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박민수 벨라도		김희동 프란치스코
봉헌자	이매향, 김명숙	최만섭, 김명숙	안우풍, 이경실

우리들의 주일정성

<1월 12일(일)>

봉헌금	\$405.00
교무금	\$50.00
미사예물	\$20.00
Total	\$475.00

김윤선(12)